

인쇄단체 · 기관뉴스

1) 동정

- ▶ 이상훈 세계직지문화협회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 최대광 동양인크 대표이사는 최근 중소기업업장에서 주관하는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을 획득했다.

2) 인사

- ▶ 신한남 동양인크 이사가 지난 1월 1일자로 상무이사로 승진, 보임됐다.

3) 부음

- ▶ 한성섭 일송기획인쇄사 사장이 지난 1월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임한갑 제일인쇄사 사장의 부인이 지난 1월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임홍조 한국출판연구소 전 이사장의 빙모가 지난 1월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서준모 삼륙인쇄사 사장의 모친이 구랍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안병익 (주)규장각 사장의 모친이 구랍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손창현 문양사 사장의 모친이 지난 1월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4) 화족

- ▶ 남중현 필경사디자인인쇄(주) 대표이사의 장녀 윤정 양이 지난 1월 22일 천주교 성산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 김영태 신신문화인쇄(주) 대표이사의 차녀 민영 양이 지난 1월 22일 엠펠리스웨딩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 김홍찬 사철인쇄사 사장의 장남 준호 군이 구랍 18일 더블유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 이승박 삼일문화정보(주) 사장의 장남 효신 군이 구랍 18일 아카시아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 정채문 태원문화인쇄 사장의 장녀 찬연 양이 지난 1월 15일 라성칸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인쇄 및 관련단체 정기총회 일정

대한인쇄문화협회	2월 24일	
인쇄정보조합연합회	2월 25일	
서울인쇄정보조합	2월 21일	

정기총회의 달인 2월,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오는 24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호텔PJ 4층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 2011년 사업을 심의, 승인할 예정이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25일 중구 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21일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인쇄 및 관련업계 주요 단체의 정기총회 일정을 소개한다.

단체명	정기총회 일시	장소
대한인쇄문화협회	2월 24일 10시 30분	서울 호텔PJ 4층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월 25일 10시 30분	서울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21일 10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22일 10시 30분	인천 현대컨벤션웨딩 홀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18일 (잠정 결정)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11일 11시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 리젠시홀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23일 10시 30분	대전 태화장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23일 10시 30분	광주 시당크호텔 6층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22일 4시	수원 리젠시호텔 2층 무궁화실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월 18일 11시	창원 창원호텔 3층 목련홀
대한출판문화협회	2월 22일 (2시)	서울 사학연금회관
한국잡지협회	2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포장협회	2월 25일 (5시)	서울 팔레소호텔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월 22일 (11시)	서울 상공회의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2월 22일 (11시)	서울 리츠칼튼호텔
제책공업협동조합	2월 24일 (11시)	서울 서교호텔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2월 25일 (3시)	서울 인쇄센터 7층

2011년 1월 21일 현재

서울조합, 신·구 4부회 간사장 간담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구랍 20일 고흥만에서 신·구 4부회 간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4부회 총회에서 추대된 김남수 책자인쇄부회 간사장, 서병기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이창래 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 김영길 전산정보부회 간사장을 비롯하여 남원호 상업인쇄부회 전임 간사장, 이기섭 사무용인쇄부회 전임 간사장, 김원희 전산정보부회 전임 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합의 발전방향과 부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기중앙회 2010년 생산직 조사 ... 노임 평균 5.9% 상승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에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1200개 업체(종사자 20인~299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9월중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77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5만7884원으로 전년의 5만4638원보다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관련 직종의 조사노임은 전자편집디자이너가 8만521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출판출력공 7만6587원, 활판인쇄공 7만5476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전산용지정합공 6만4505원, 스캔기능공 6만5275원, 스티카인쇄공 7만2590원, 전자조판공 6만6306원, 사진제판공 7만563원, 오프셋인쇄공 6만7793원, 인쇄동판제조공 7만4579원, 인쇄연판제조공 7만1961원, 제본공 6만9372원, 지류 제단공 6만8291원, 금박공 6만2624원 등 대부분 6~7만원대 였으나 교정사는 5만9387원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직지' 금속활자 복원해 새로 인쇄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복원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직지 세계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기술을 규명해 우리의 인쇄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직지를 찍어낸 금속활자를 우선 복원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직지 하권 인쇄에 쓰인 1만4천자의 금속활자를 고려시대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밀랍주조법으로 복

5 변경

- ▶ (주)스피드칼라(대표이사 천호규)는 최근 업체 명을 주식회사 프린트시티로 변경했다.
- ▶ 선우정보인쇄(대표 권승후)는 최근 업체 명을 주식회사 선우정보인쇄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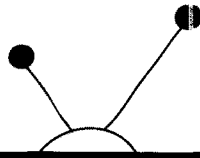
6 이전

성도GL/성도솔루션, 본사 이전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월 7일, 본사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한 본사는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서울숲 코오롱 디지털 타워 3차이다. 회사 측은 전 직원이 새로운 공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션에서는 이번 이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발전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며, 고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전화와 팩스 등은 모두 기존 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 코오롱 디지털 타워 3차 12층
대표 전화 : 02-3406-7000 / 팩스 02-3406-7030

- ▶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대표이사 김병환)는 최근 사업장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동문 굽모닝타워 1차 418호로 이전했다. 전화와 팩스는 이전과 같다. 031-920-8224(대)
- ▶ (주)삼원프린테크(대표이사 박제택)는 최근 사업장을 성동구 성수동2가 279-11로 이전했다.
- ▶ 호인피엔피(대표 곽효섭)는 최근 사업장을 서대문구 미군동 72-1로 이전했다.
- ▶ 청신인쇄사(대표 백태중)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초동 158-1로 이전했다.
- ▶ (주)삼한정보기획(대표이사 김금남)은 최근 사업장을 용산구 한강로1가 79-1로 이전했다.
- ▶ 신인테크(주)(대표이사 김순화)는 최근 사업장을 광명시 광명테크노파크로 이전했다. 전화 및 팩스는 이전과 같다. 전화 02-851-4114, 팩스 02-853-4172



원한 뒤 이를 이용해 직지를 다시 인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밀랍주조법은 한꺼번에 여러 활자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고려시대에 이 방법으로 방대한 규모의 직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금속활자를 대량 생산했던 '비밀'을 풀어내는 시도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씨에 의해 복원되기는 했지만 직지에 사용된 모든 글자의 제작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복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제4회 유네스코 직지상 9월 청주서

청주시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제4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을 오는 9월 2일 청주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유네스코 본부는 세계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공모한 뒤 5월 22~25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와 유네스코는 2004년 4월 '직지상'을 제정했으며 2005년부터 격년제로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3만 달러와 상을 전달하고 있다.

첫해에는 체코 국립도서관, 2007년에는 오스트리아 과학학술원 음성기록 보관소, 2009년에는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 시는 9월 1~4일을 직지 주간으로 정해 고인쇄문화, 기록 유산 등과 관련된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 우표 등 발행

올해에는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뽀로로), 극지 및 빙하보호, 발해 대조영 등을 소재로 한 우표가 발행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최근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우표'를 시작으로 용을 소재로 한 연하우표까지 모두 16건 46종의 기념우표와 시리즈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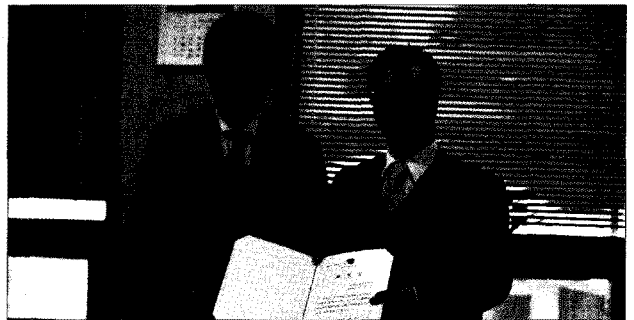
특별우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우표'는 어린 이들에게 인기있는 소재로 뽀로로와 그 친구들을 우표에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 시리즈우표(5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극지 및 빙하보호 특별우표(6월)'가 나온다.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 국민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 특별우표(조선왕릉, 6월)와 발해 대조영 특별 우표(11월)도 선보이며, 마지막 우표로 용을 소재로 한 연하우표가 발행된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이민성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월간 프린팅코리아 편집위원인 이민성 성우에드컴 사장이 구랍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민성 사장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편집위원으로 재임하면서, 잡지 디자인을 미려하게 하여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한편, '한국의 인쇄문화'라는 홍보책자를 디자인하여 해외에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쇄문화가 세계수준에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이민성 사장은 인쇄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5년에 커뮤니케이션 출판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국제디자인상인 IBA상, 2010년에는 서울인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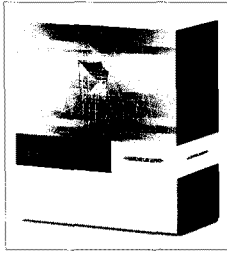
노웅선 대표, 21세기 CEO 공로 부분 대상 수상

노웅선 (주)웅선비즈니스 대표이사가 구랍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21세기 CEO 공로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스크린그래픽센터, 하이델 프리넥 워크플로 가동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스크린그래픽센터(대표 김학준)는 최근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넥 워크플로를 도입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프리넥 워크플로의 설치로 기존 교정기의 교정 품질 향상과 안정성이 높아져 만족스럽다고 스크린그래픽센터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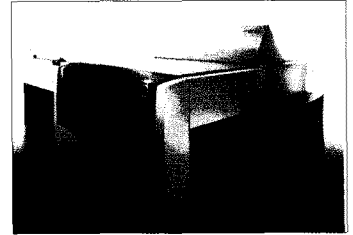
스크린그래픽센터에 설치된 프리넥 워크플로는 출력업체에게 필수적인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제품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프리넥 프리프레스 매니저(Prinect Prepress Manager)는 인쇄 검증된 PDF를 생성하는 동시에 PDF 파일의 활용도를 높이며 완벽한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제공한다.

PDF 기반 워크플로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RIP인 프리넥 메타디멘존(Prinect MetaDimension)은 포스트스크립트로 먼저 전환할 필요 없이 바로 PDF 문서를 립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터잡기 프로그램 중 유일의 한글 프로그램으로 버저닝(Versioning) 기능을 갖추어 다국어 작업(매뉴얼, 화폐 등)이 가능한 프리넥 시그나 스테이션(Prinect Sigma Station)은 소프트 프루핑을 위한 시각적 검사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작업의 변경이 손쉽다.

이외에 완벽한 PDF 편집을 위한 프리넥 PDF 툴박스(Prinect PDF Toolbox)는 PDF 파일의 종합적인 디버깅과 처리를 위한 전문 툴과 색상의 최적화와 여러 매체를 걸친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삼보에이팩, 하이델 CTP 및 솔루션 설치

(주)삼보에이팩(대표이사 김용률)은 최근 하이델베르크 서멀 CTP, 수프라세터105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패키징 전문업체인 삼보에이팩은 주요 생산라인의 대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서멀 CTP, 수프라세터와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프리넥 패키지 디자이너(Prinect Package Designer)를 도입함으로써 프리프레스 워크플로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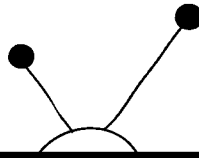


프리넥 패키지 디자이너는 박스 디자인 전문 CAD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박스를 디자인하고 커팅 다이와 관련 툴을 만드는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 솔루션이다. 설계자의 작업을 돕고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하며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며 ECMA와 FEFCO 표준을 포함한 재사용 가능한 박스 타입, 박스 모형 미리보기와 패키징 구성 요소의 종합적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시너지 기능은 이미 저장된 디자인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가로, 세로, 높이의 수치를 조정하고 날개 등 구성 요소 등을 개별적으로 디자인하여 드래그와 드랍으로 박스 바디에 대입하여 쉽고 간편하게 새로운 형태의 박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수프라세터 105는 편칭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정확한 편 맞춤으로 인쇄 작업 준비 시간 및 손지 절감을 실현하며 새로운 모듈을 더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하이델, 국군인쇄창에 프리넥 워크플로 설치

한국하이델베르크(대표 김범식)는 국군 인쇄창에 프리넥 자동화 PDF 워크플로와 인쇄 발주자와 온라인 프루핑에서 데이터 교환까지 손쉽게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프리넥 리모트 액세스(Prinect Remote Access)를 설치했다.

하이델베르크의 자동화 PDF 워크플로는 디자인 편집된 문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출력 결과물을 생성해 주는 전문화된 솔루션으로 프리넥 프리프레스 매니저(Prinect Prepress Manager), PDF 기반 워크플로에서 최고의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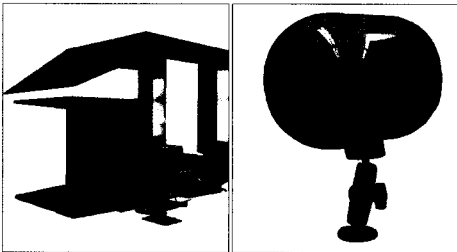


을 자랑하는 RIP인 프리넥 메타디멘존 (Prinect MetaDimension), 터잡기 프로그램 중 유일의 한글 프로그램으로 버저닝 (Versioning) 기능을 갖추어 다국어 작업 (매뉴얼, 화폐 등)이 가능한 프리넥 시그나 스테이션 (Prinect Signa Station)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리넥 리모트 액세스 (Prinect Remote Access)는 인쇄사와 고객간 효율적인 웹 기반의 작업 워크플로를 위한 최신 솔루션이며 작업을 위한 데이터 교환 및 프루핑 과정이 자동화되었다. 또한 양측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편리해지고 확실하여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진다. 이에 따라 인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이 감소된다.

신안테크, 해내리에 용지 반전기, 가슴기 설치

신안테크 (주) (대표이사 김순호)는 (주) 해내리 (대표이사 송영덕)에 용지반전기



<왼쪽>와 가슴기 Eco-mist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내리의 송영덕 대표는 “각종 인쇄설비 증설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편의성 향상을 병행하기 위하여 용지반전기와 가슴기를 도입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용지반전기는 인쇄용지 반전 작업이 안전하고 고장이 적으며 가동 편리성 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KIDA사의 용지반전기가 가동 효율성과 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인쇄작업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대리점인 신안테크는 일본 KIDA사의 용지반전기의 특징으로는 용지반전의 모든 동작이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이 간단한 점을 비롯, 기아다모터방식으로 유압방식에 비해 적은 힘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용지반전시 클램프의 용지 조임 강도를 다양화할 수 있어 뒷뿔음을 방지하고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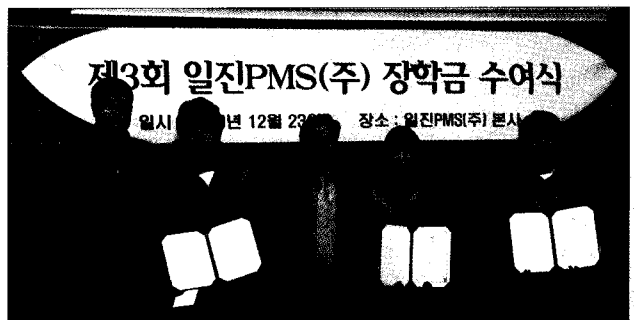
문의 02-851-4114

일진PMS, 신년 맞이 정기산행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제)는 지난 1월 8일 박경제 대표를 비롯해 전 직원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서리산으로 눈꽃트래킹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등반은 매년 1월 신년을 맞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사내 행사로, 올해는 서리산을 등반했다. 등반에 참가한 직원들이 “영하의 기온과 눈 때문에 안전사고를 걱정했지만 서리산은 비교적 완만한 코스라 다행이었다. 오히려 눈꽃을 즐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 박경제 대표는 “매년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나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인쇄업계에 있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전 직원이 다함께 돌파구를 찾아가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진PMS, 제3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제)는 구립 23일 인쇄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3명을 선정해 제3회 일진PMS(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각 학교의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심사,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인쇄정보공학과 최인식, 중부대학교 공과대학 인쇄미디어학과 정수진, 신구대학 그래픽아트미디어과 김정만 학생 등 총 3명이 선정

되었다. 이날 일진PMS 박경재 대표는 장학생들을 축하하며, 더 많은 인재가 인쇄업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장학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도GL /성도솔루원, 창립 36주년 신년의 밤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월 7일 하얏트 호텔에서 창립 36주년 기념 성도가족 신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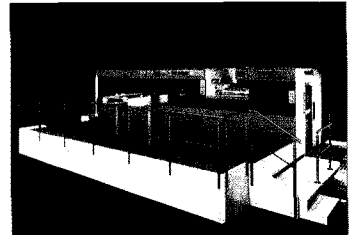
회사 측은 전 직원과 가족들이 모여 회사의 창립의 의미와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다시 한 번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그 밖에도 클래식 공연을 통한 문화 나누기, 직원, 부서, 가족 간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가치 있고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원, 전 직원 문화의 시간 가져

(주)성도GL/(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구랍 16일 전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문화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원은 이번 문화나눔 행사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공연을 관람하면서 전 직원의 감성함양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원은 문화경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 감성공유, 사회 환원 및 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만로랜드코리아, 밥스트와 협력관계 연장

만로랜드코리아(대표 케네스 엠 한센)는 밥스트(BOBST)와 전략적 제휴 협력관계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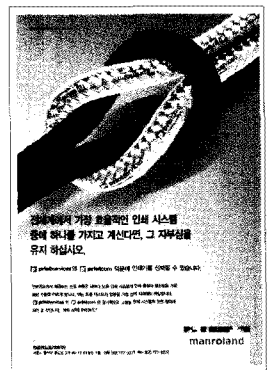
지난 협력관계 연장과 관련, 만로랜드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밥스트의 제품과 부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공급해왔으며 밥스트는 만로랜드코리아와의 지난 2년 간의 판매 및 서비스 결과에 만족감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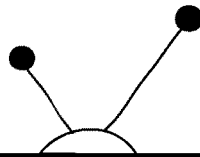
이에 따라 협력관계 연장을 위해 밥스트의 한국 세일즈 및 서비스 총책임자 네일 존스가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결과, 제휴 협력관계를 지속키로 결정하였으며 만로랜드코리아는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인쇄산업 가운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패키징 인쇄 및 가공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패키징 장비 생산 업체인 밥스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객사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밥스트는 1890년 창사 이래 다이커터, 접착기, 그라비아 인쇄기 등을 전세계에 공급하여 왔으며 특히 다이커터와 접착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만로랜드코리아, 2011년 새 광고 선배

만로랜드코리아(대표이사 케네스 엠 한센)는 2011년을 위한 메인 광고를 본사와 동일하게 선보이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일 디자인 콘셉트는 종합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인 printservices, 만로랜드의 인쇄재료(printcom)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만로랜드코리아는 만로랜드의 고품질 출판, 상업 및 포장 인쇄를 위한 인쇄 시스템들을 공급하고, 고품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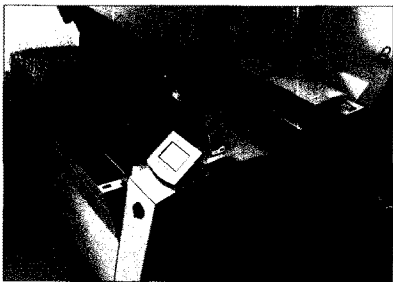




서비스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시장들 및 고객들에 가깝게 위치하고자 하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 이를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인쇄 공정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인쇄재료 브랜드인 프린트컴(printcom)은 인쇄 능력(print competence)의 약자로 인쇄실(pressroom) 제품 품질에 대한 만로랜드의 입장이다. 이는 프린트컴(printcom) 상표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만로랜드 기술부서의 테스트와 인증을 거친 제품임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그저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다른 회사들과 만로랜드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다른 회사들이 한 제조 회사의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하는 반면, 만로랜드는 몇 개의 선택된 공급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일프린팅, 아그파 아발론 N4 10S CTP 및 컨설팅 서비스 계약

(주)용일프린팅(대표 유승용)은 최근 아그파의 아발론(Avalon) N4 10S CTP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 업계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일프린팅은 이번 아그파의 CMS 컨설팅의 도입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인쇄물의 생산은 물론, 항상 일정한 품질의 인쇄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승용 대표는 이번 투자에 대해 “친환경적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일 프린팅이 추구하는 사업목표다. 수출하는 인쇄물을 생산하다 보니 최신 설비투자는 기본으로 우리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장비가 무엇인지, 또한 자사가 당면한 가장 최대 문제인 CMS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장비의 안정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입증된 아그파 CTP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결정을 내려 선택,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시스템에

새로운 CTP시스템이 보강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더 좋은 품질의 인쇄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그파코리아 김남도 과장은 "아그파의 최신 CTP 시스템 및 아그파의 꾸준한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업계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잉크,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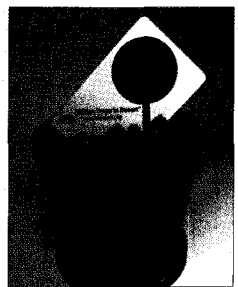
KMi 광명잉크(대표이사 이남규)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베스트 군에 선정됐다.

‘잡월드 베스트 600’ 소속 기업은 조선일보와 IBK기업은행이 인사컨설팅업체인 mercer와 공동으로 5개월간 평가작업을 통해 선정됐다. 기업의 자산 매출 신용등급 등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급여수준과 복리후생, 회사에 대한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엄선했다. 이들 기업현황과 인재모집 정보는 조선일보와 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남규 대표이사는 “기계 건물과 같은 기업의 자산은 매년 감가상각되지만 인재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일하고 싶고, 일이 즐거운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이로 인한 기업의 창출가치가 고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마음커뮤니케이션, 독특한 씨앗명함 출시

(주)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박진만)의 대표브랜드 미스터에이(www.mra.co.kr)는 최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씨앗명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씨앗명함’은 기존 미스터에이 카드명함에 자신을 알리는 다양한 표현을 기입한 후 명함 하단 끝부분에 씨앗줄을 감



는 녹색신기술을 접목했다.

신개념의 '씨앗명함'은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미스터에이'와 '초록의 꿈'의 만남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씨앗명함을 흙에 꽂아 두고 물을 주면 며칠 뒤 예쁜 새싹이 나오게 되며 씨앗에서 자라나오는 새싹을 볼 때마다 명함의 문구나 이미지를 동시에 보게 되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미스터에이 방대현 부사장은 "새로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명함에서 시작된다"면서 "이 명함에 생명을 불어 넣어 짝을 띄움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씨앗명함은 미스터에이(www.mra.co.kr)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국HP, 레이저젯 프린터 및 디지털복합기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구랍 20일 동급 최강 컬러 품질로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성능 컬러인쇄가 가능한 'HP 컬러 레이저젯 프린터 및 디지털복합기 시리즈'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은 컬러 레이저젯 프로 프린터 및 복합기 3종(HP CP1025 프린터시리즈, HP CP1525 프린터 시리즈, HP CM1415 복합기 시리즈)과 컬러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 프린터 및 디지털복합기 2종(HP CP5525 프린터 시리즈, HP CM4540 디지털복합기 시리즈), HP 레이저젯 프린터 및 복합기 2종(HP 레이저젯 프로 M1536 복합기, HP 레이저젯 P1606dn 프린터) 및 스캐너 1종(HP 스캔젯 프로페셔널 3000)으로 사내에서 컬러 출력이 많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적합하다.

신제품 8종은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성능 컬러인

쇄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고품질 대용량 문서출력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기존 '컬러 레이저젯'이라는 브랜드에서 '컬러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라는 라인업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최소 76mm 폭의 내로우 용지(Narrow Media)출력을 지원해 지로용지만만 아니라 엽서크기 용지 등 다양한 크기의 용지 옵션 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후지제록스, 직장인 에티켓 캠페인 실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직장인 에티켓 캠페인 "새해에는 이런 행동 그만해요"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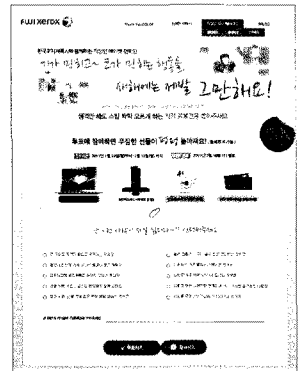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한국후지제록스의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다양한 꼴불견 유형들 중 하나에 투표하면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는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장 내 꼴불견에 대한 의견을 직접 입력해도 된다. "그만해요" 캠페인 사이트에 올라온 2011년 보기 싫은 직장 내 꼴불견 유형은 퇴근시간 10분전 업무 지시하는 상사, 회식 때 원샷 강요하는 상사, 뒷담화로 헛소문 퍼뜨리는 동료 등으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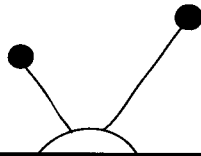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맥북 에어(1명), 엑스박스360(1명), 즉석카메라(2명), 영화예매권 2매(1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시 관련 내용을 본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입소문을 내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신상현 한국후지제록스 마케팅실장은 "직장 내 다양한 꼴불견들의 모습을 통해 새해 계획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모습 또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11년에도 한국후지제록스의 주요 고객인 직장인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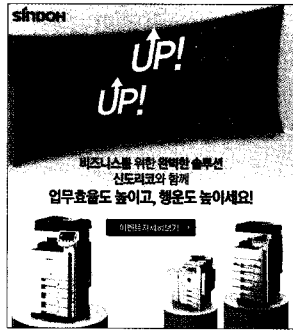
홈페이지_ <http://event.fujixerox.co.kr/stop>





신도리코, 비즈니스 업! 행운 업! 이벤트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 행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업! 행운 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경품 증정과 함께 체험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품 증정 이벤트는 신도리코의 A3 복합기 중, 이벤트 대상 기종을 구매하는 전 고객에게 코닥 포켓 캠코더, 외장 하드디스크(500GB), 국내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한다. 대상 기종에는 신도리코의 최신 제품인 D400시리즈(D400/D401/D402), N600시리즈(N600/N601/N602), 디지털스 4025A, 디지털스 4300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월에 본격 출시 예정인 첨단 레이저 복합기 'M401'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마련했다. 신도리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체험단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 해당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응모자 300명에게 영화예매권을 증정한다.

영업총괄본부장 최종하 전무는 "이번 이벤트는 신도리코의 최신 디지털 복합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품으로 사무용 주변 기기를 증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경품 당첨 행운과 업무 효율 상승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홈페이지_ www.sindoh.com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작품 모집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지준영)는 최근 제 11회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이하 ADAA)' 작품 모집 일정을 발표했다.

제 11회 ADAA 모집 일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24일(미국태평양 표준시 기준)이며, 1차 마감은 이미 끝났다. 2차 마감일은 4월 29일, 3차 마감일은 6월 24일이며 정식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학생 또는 교수진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제 11회 ADAA작품 모집 부문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웹과 모바일 분석 ▲비디오 및 모션 ▲전통 미디어 등 총 4개 분야이며, 특히 올해에는 창의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교육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혁신 부문과 교육용 비디오 및 모션 혁신 부문, 교육용 전통 미디어 혁신 부문 등 교수진 부문이 신설되었다.

더불어 이번 ADAA에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총 4개 분야 중, 웹 및 모바일 분석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는 3차의 심사단계에서 각각 준결승 진출 작품을 발표한다. 참가자는 1차 또는 2차, 또는 3차 심사 단계에 해당 분야에 2개까지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1,2차 심사에서 준결승에 오르지 못한 경우, 다음 심사 단계에서도 동일 분야에 다른 작품을 또 제출할 수 있어 참여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된다. 참가자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비용은 없다.

홈페이지_ www.adobeawards.com

니콘, IF디자인 어워드 2개 제품 동시 수상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DSLR D3100과 콤팩트 카메라 COOLPIX S1100pj가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인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를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D3100은 니콘 DSLR 카메라 중 최초로 초고 화질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무비'(D Movie)를 탑재한 니콘의 보급형 DSLR카메라이다. 3형(7.62cm) 크기의 대형 액정 모니터는 라이브 뷰 기능은 물론 '피사체 추적 AF'를 탑재해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특히 무게가 455g로 가볍고 손에 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해 휴대가 간편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 버튼 배치가 특징이다.

함께 수상한 니콘의 콤팩트카메라 COOLPIX S1100pj는 쉽고 간편한 터치조작과 14인치 루멘의 밝기로 VGA급 해상도의 최대 47형(약 120cm) 화면으로 확대 가능한 프로젝터를 내장해 디지털카메라의 활용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3형 TFT액정을 통해 촬영직후 화상편집이 가능하며, PC와 연결해 프로젝터로 활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출판뉴스

출협 신년 교례회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1월 5일 오후 5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2011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 민병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전용진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종영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등 내빈과 많은 출판인들이 참석했다.

백석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곳곳이 좋은 책 만들기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3년간 회장으로로서 대과없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축하 떡 자르기와 건배제가 진행됐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재임기간동안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잡지협회 신년인사회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는 지난 1월 5일 오후 5시30분

서울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11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조운선 한나라당 의원,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용진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잡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제는 잡지인들의 능동적인 변화로 잡지를 통해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잡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잡지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잡지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선규 조운선 의원도 “잡지발전5개년계획이 제대로 추진 되도록 돕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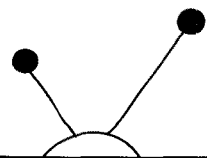
한국출판인회의 신년 교례회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출판인회의 지하 강당에서 각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한철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위기 속 토끼의 지혜가 요구되는 한해가 될 듯하다.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협력과 상생을 통해 튼튼한 출판문화산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출판유통건전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철희 회장에 이어 김혜경 전임회장 등 출판인들의 새해덕담과 함께 다과회가 이어졌다.



한국출판학회 신년인사회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춘)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30분 출판협회 4층 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정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학에서 출판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 심혈을 기울여 출판과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학회원들 덕분에 대과 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신묘년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학업적 업적도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민병덕 한국출판학회 고문, 이종국 전 출판학회 회장, 양성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덕담도 이어졌다.

파주 출판도시서 10월 세계적 '책축제' 개최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월 18일 출판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10월중 출판도시에서 책, 전자출판, 영상, 예술을 포괄하는 국제도서전 '파주 북(BOOK) 소리 2011(가칭)'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사업비를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한데 이어 축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 책 축제에는 출판도시 입주 업체 150개와 국내 출판사 150개 업체, 해외 출판사 100여개 업체 등 400개 업체와 1천여 명 작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제는 책과 관련된 전시, 박람회, 심포지엄, 이벤트, 책방거리 도서전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시공간에는 '직지에서 구텐베르크까지'와 '근대 출판 100년 발자취' 등 출판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각종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뉴미디어 전자출판, 교육콘텐츠박람회, 교육출판 등 출판박람회도 열린다.

행사기간에는 출판 환경에 따른 각종 출판 심포지엄을 비롯해 문학인 초청 강연회, 저자와의 만남, 1만 독자 마라톤 토론회, 애장도서 자선경매 등 각종 이벤트와 체험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판단지 내에 책방거리가 조성돼 책시장, 고서 특별기획전, 활판공방특별전 등 도서전도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 매월 '동네Book데이' 개최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월 22~23일 동네Book데이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공공일 독서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광문각, 김영사, 민음사 등 10여개 출판도시 입주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 대해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입주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지만 따뜻한 문화공간으로 거창한 축제는 아니지만 시골 밥상 같은 정겨움이 묻어나는 동네잔치로서 북카페에서는 작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편에서는 어쿠스틱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 등 철저하게 입주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드는 행사여서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아끼자끼한 손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네Book데이는 매월 넷째 주 주말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이공공일 독서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읽은 책 리뷰를 출판도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달 동네Book데이가 돌아오는 2월 넷째 주까지 리뷰를 20개 이상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또 출판도시 동네Book데이에서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 '사진게시판'에 올린 사람들 중 한 명에게는 책장 하나를 딱딱 채워 서재를 만들어 주는 '서재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벤트도 진행됐다.

출제모, 2011년판 출제모 수첩 발간

저자,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 운영자/제작자/영업자, 출력소 지업사, 인쇄사, 제책사 등과 같이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인 다음카페 출제모에서 1월 1일 <2011년판 출제모 수첩>을 발간했다. 홈페이지- daum.net/bookmakepeople

조선왕실의 어보, 총 3권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진우)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 유물인 '어보'를 정리해 '조선왕실의 어보' 총 3권을 발간했다. 이는 단일 유물 건수로는 국내에서도 보기 힘든 방대한 양이며,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는 어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조선왕실의 의례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어보는 존호나 시호를 올릴 때나 가례, 길례 등 각종 궁중의식에 의례적으로 사용된 권위의 상징물이다. 이 어보 유물은 원래 종묘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로 1994년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이관되었다가,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현재 고궁박물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는 유물이다. 이번 도록에 실린 어보는 태조의 4대 조상(목조, 도조, 익조, 환조)부터 27대 순종을 비롯해 추존왕(덕종, 원종, 진종, 장조, 문조) 등 34명의 왕과 48명의 왕비와 계비, 세자와 세자빈까지 316종이다. 이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유물은 1441년 문종비 현덕왕후의 어보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유물은 1928년에 제작된 순종비 순명효황후의 어보이다.

하나의 어보는 거북이나 용으로 장식된 어보뿐만 아니라, 어보를 넣는 내함인 보통, 보통을 넣는 외함인 보록, 그리고 어보·보통과 보록을 싸는 보자기와 이를 묶는 끈 등 최소 6개 이상의 다양한 유물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된 책에는 제1권 어보 316점, 제2권 보록·보통 각 312점 및 자물쇠 열쇠, 제3권 보자기·영자 1824점 등 3361여 점의 유물에 대한 사진자료와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지뉴스

한솔제지, 올해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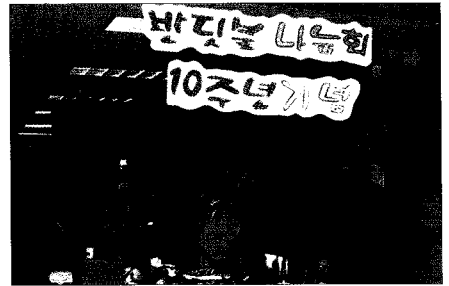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구랍 17일 대전공장 대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전 임원, 팀장, 해외 법인장 및 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솔이 달성한 경영성과와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2011년 부문별 경영전략 및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오규현 대표는 "2011년 경영방침을 '고객중시 경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경영 활동을 통해 수익을 동반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랑나눔 바자회 열어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구랍 20일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솔제지 장항공장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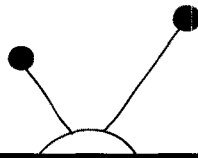


등 모임인 1% 반딧불나눔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바자회는 임직원들이 내놓은 의류와 장난감, 도서, 헬스기구, 천체 망원경 등 200여점으로 평소 직원들이 갖고 있던 물건에 가격이 매겨져 다른 직원에게 직접, 또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1% 반딧불나눔회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무림P&P, 월간 빅 이슈 잡지 후원

무림P&P(대표 김인중)가 올 한해 동안 홈리스 판매원의 자립을 돕는 월간 '빅 이슈(THE BIG ISSUE)' 잡지의 연간 제작용지 전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림P&P는 월간 빅 이슈 잡지의 2011년 제작용지 월 4만부 전량인 56톤을 지원하며, 상반기는 계열사인 무림페이퍼 종이(네오스노우화이트 120 g/m², 네오플러스(백색) 80 g/m²)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가동에 들어가는 일관화공장의 종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림P&P는 오는 5월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일관화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종이 양산을 시작하며 일관화공장의 종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종이’의 역할을 먼저 하자는 취지에서 월간 ‘빅 이슈’에 종이를 지원한다. 무림은 앞으로도 일관화공장 제품의 ‘착한 종이’ 선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림, 2011년의 특별한 시무식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와 무림SP, 무림P&P의 펄프·제지 3사 임원들이 2011년의 첫 근무날인 지난 1월 3일, 울산공장에서 아주 특별한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한 이날 시무식에는 이동욱 회장을 비롯해 김인중 사장과 서울 본사, 진주공장, 대구공장, 울산공장 4개 사업장 임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국내 최초 펄프·제지 일관화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2011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이동욱 회장과 김인중 사장 등 임원진은 직원들에게 직접 떡국을 나눠주며 격려했다. 또한 임직원 250여명이 공장 지신밟기를 하며 일관화공장의 성공을 기원하고 제지업계 선두로 도약하자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무림P&P, 2011년 해맞이 행사

무림P&P(대표 김인중) 지난 1월 1일 울산공장에서 2011년의 첫 해를 함께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칩 야적장 부근에 위치한 해맞이 장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무림P&P 임직원과 가족 150여명이 모여 7시 30분 첫 해가 뜨자 박수와 환호성으로 첫 일출을 반기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아울러 ERP 시스템 도입과 일관화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무림P&P의 2011년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무림P&P는 매년 해맞이 행사를 가지면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새해 소망을 비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무림 2011 캘린더,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무림(대표 김인중)의 2011년 캘린더가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무림의 캘린더는 매년 달력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으로 벽걸이용, 탁상용 2종을 제작해 오고 있다.



한국제지, 고객 신년하례회 및 우수 거래처 포상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월 10일 인쇄용지 대리점을 비롯해 실수요 고객, 복사지 대리점 등 총 10여개 업체 대표를 초청, ‘2011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새해 인사와 더불어 우수 거래처 포상으로 고객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올해 업황을 전망하고 사업 번창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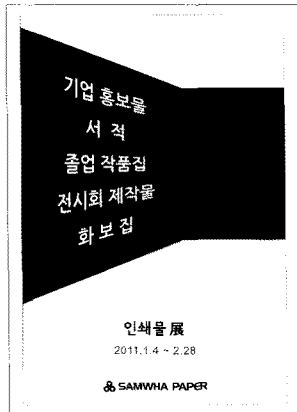
한국제지, 사내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주니어보드(Hiper Bridge)의 제안으로 사내문화 개선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내에 고착된 불합리한 관습과 행동방식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위와 업무영역을 넘어 임직원들간의 존중심과 배려심을 고취하며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11년 1분기 주제는 ‘고운말을 씁시다(존대말 쓰기, 바른 호칭 쓰기, 비속어 지양)’이다. 한국제지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직장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보다 수평적이고 다각적인 사내문화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화제지, 인쇄물전 열어

삼화제지(대표 김성호)는 그 동안 삼화제지의 종이로 제작되었던 다양한 인쇄 소장품들이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인쇄물전'을 열고 있다. 삼화페이퍼갤러리는 여러 인쇄물들을 기업홍보물, 서적, 졸업작품집, 전시회 제작물, 화보집 등의 5종류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온 것 같은 공간 구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종류의 책들을 펼쳐볼 수 있다. 특히 삼화제지의 고급 인쇄 용지인 랑데뷰, 아이리스의 뛰어난 인쇄 품질을 자랑하는 서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사업체 1901개사(전년비 18.9% 감소), 종사자 2만7902명(전년비 9.9% 감소), 출하액 4476억 7천만엔(전년비 13.1% 감소)였으며 제본업은 사업체 2092개사(전년비 7.0% 감소), 종사자 2만1475명(전년비 2.1% 감소), 출하액 2124억 4800만엔(전년비 13.1% 감소)였다. 한편, 인쇄물가공업은 사업체 2108개사(전년비 3.0% 감소), 종사자 16,362명(전년비 2.9% 감소), 1752억 1400만엔(전년비 1.0% 증가)였으며 인쇄관련서비스업은 사업체 272개사(전년비 14.8% 증가), 종사자 2746명(전년비 10.8% 증가), 출하액 2452억 2천만엔으로 파악됐다.

이중코팅 스피드마스터 XL 145 Karl Knauer KG에서 가동



하이델베르크는 세계 최초로 이중 코팅 및 완전히 통합 로지스틱스를 장착한 6도 스피드마스터 XL 145가 Karl Knauer KG 사에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Gerhard Kammerer 공장은 “약 1천만 유로에 달하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였다.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 공정 절감형 생산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스피드마스터 XL 145는 6개의 오프셋 인쇄 유닛, 2개의 코팅 유닛 및 2개의 건조 유닛과 연장 배지부를 갖췄다. 배지부에는 수성 코팅과 UV 프라이머 사용이 가능하도록 드라이스타 컴비네이션/UV 테크놀로지가 장착되었으며 4미터 높이와 40미터가 넘는 길이의 이 기계는 최신의 패키징 및 표면 마감 기술에 정점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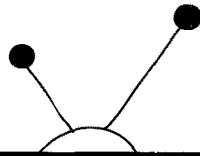
스피드마스터 XL 145는 프리넥 프레스 센터와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을 장착하고 있다. 이 솔루션으로 급지, 인쇄 및 코팅에서 건조 및 배지까지 모든 작업 변수를 간단하게 조절할

해외뉴스

일본인쇄산업, 사업체 수 등 감소세 지속

일본 인쇄산업연합회는 일본인쇄산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일본 경제통산성의 2008년 공업 통계표에 따르면 인쇄 및 관련업의 사업체의 수는 금속제품, 식료품, 직물공업, 생산용기계기구 등 제조업 24개 업종 가운데 5번째 규모로 전제조업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인쇄 및 관련업의 출하액은 전년에 비해 3.3% 감소한 6조9037억엔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인쇄업은 사업체 2만3311개사(전년비 9.7% 감소), 종사자 35만3906명(전년비 4.2% 감소), 출하액 6조 438억 3500만엔(전년비 2.7% 감소)이었다. 제판업은



수 있으며 핀맛춤과 칼라 조정 또한 가능하다. Karl Knauer 사는 새 스피드마스터가 250 작업 준비 손지 후 작업 생산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평균 7000매의 통수 작업에서 시간과 재료의 막대한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인쇄·출판업 민영화 계획 박차

중국이 인쇄·출판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신문출판총서(GAPP)는 작년 4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의 도서 출판을 허용한데 이어 4월 1일 민간기업의 인쇄·출판업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했다.

출판총서는 이날 발표한 '신문출판업 발전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지도의견'이라는 제목의 1호문건에서 개인과 민간기업이 ▲출판 내용 제공 ▲국유기업과 합작 ▲국유기업의 일부 부서화 등 방식을 통해 출판·도서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과 민간기업은 이 문건에 따라 과학기술, 재경, 참고서, 음악예술, 아동도서 등의 인쇄·출판업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또 정책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인쇄와 출판물 간행, 그리고 인쇄·출판물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이 허용돼 국유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고 문건은 말했다. 문건은 또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해외에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합병(M&A), 합작 등의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쇄·출판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만들고 영업점포도 개설해 현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작년 4월 민영 출판사를 중국 도서 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육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민영 기업의 출판·도서업 진출을 허용했으나 아직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신문출판업 매출액이 작년 1조 위안(170조원)을 돌파했다. 신문이 1943개, 간행물은 9천549종에 달한다. 도서출판 기업이 580개에 관련 기업이 민영, 외자, 합작업체를 합쳐 총 12만 여개에 이른다.

도시바테크코퍼레이션 산업용 라벨 프린터 신제품 B-EX4 공개

도시바테크코퍼레이션(Toshiba Tec Corporation)은 내구성이 뛰어난 도시바테크의 산업용 프린터에 사용자 친화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술 혁신으로 전반 성능을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현재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총소유비용(TCO)을 한층 더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모든 라벨 프린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인 리본 절약 기능이 적용돼 있다. 종전 모델에 비해 대기 시 전체 전력 소모량을 거의 40%까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기 모드 전력 소모량이 9W를 밑도는 도시바 B-EX4는 친환경적인 산업용 프린터로 최근 실시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모든 경쟁 제품을 압도하며 '뉴 에너지 스타(New Energy Star)' 등급을 충족시킨 바 있다.

도시바 B-EX4는 다양한 프리미엄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특허기술을 적용한 스냅인(snap-in)형 프린트 헤드와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는 툴리스(tool-less)형 플레이트(platen) 교체 등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하드웨어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별화된 LCD 그래픽 '헬프데스크' 화면으로 설정 조작을 한층 개선했으며 이로써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절감하는 한편, 프린터 이상이 있을 때 사용자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다양한 '헬프 기능' (Help Function) 유틸리티는 사용이 간편하며 산업용 프린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두드러진 기능이다. 새로 선보인 B-EX4 모델은 동종 제품군 중 최고의 가격대비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B-EX4 제품은 2월 시판될 예정이다.

PAGE2011, 2월 2일부터 동경서 개최

인쇄 DTP 및 프리프레스 전시회인 'PAGE2011'이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의 도쿄 선샤인시티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특설 부스에서는 디지털 사인과 디지털 인쇄, 디지털 워크플로 솔루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전자책 코너에서는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다양한 전자책은 물론 인쇄의 노하우가 반영된 전자책도 만날 수 있다.